

	보도자료	
	배포일시	2019. 7. 17.(수)
담당부서	담당자	
KIND 전략기획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인프라협력센터 센터장 이병진 • ☎ (02) 6746-7390 	
보도일시	2019년 7월 18일(목) [배포 이후 보도가능]	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한-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개소식 개최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7월 18일(목)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정부 및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-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해외인프라협력센터이다.
-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, 베트남 교통부 (Ministry of Transport) 응우옌 닛 차관,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연합회(VUSTA) 부회장 니엠 부 카이 등 베트남 정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현지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.
- 해외인프라협력센터는 ‘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’를 비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신북방·신남방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KIND가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에 인프라 협력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.
-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된 동 센터는 앞으로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 등 지역의 인프라 시장 동향 조사·분석, 현지국 정부와의 교

류 확대 등을 통해 인프라 분야 PPP 사업 기회를 발굴 ·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수주 지원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장은 축사를 통해 “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,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글로벌인프라펀드 (GIF)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에 특화된 민·관협력 펀드를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여 인프라협력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, 한-베 인프라협력센터가 베트남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넘어 신남방지역 경제 협력의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- 교통부 응우옌 넷 차관도 축사를 통해 “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며,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서 든든한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며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’고 하면서 “현재 도로, 공항 등 베트남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-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의 가교역할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이 더 많은 PPP 사업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KIND 서택원 부사장은 “한-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는 지난 세기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통해 축적된 인프라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및 신남방지역에 전수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,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함께 답을 찾고 조력하도록 하겠다” 는 의지를 밝혔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KIND는 이번달에 케냐에 인프라협력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게 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이병진 센터장(☎ 02-6746-7390)이나 사업전략실 고준석 실장(☎ 02-6746-7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개소식 사진





